

노동 피코노동자 미국 원정시위 석달째

협상거부에 5일부터 단식 돌입

끝내 미국 시러큐스 리버풀에 있는 피코 본사 앞 황량한 도로에서 지난 5일부터 단식이 시작됐다. 단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떼어먹고 도망친 미국인 사장과 담판을 하기 위해, 불펜을 팔고 김장을 해준 돈을 팔뿐이 모아 미국으로 건너와 거의 석달 동안 시위를 계속해 온 피코 노조위원장 유점순(36)씨 등 3명의 노조원들이다.

이들은 “지옥의 유흥불이 꺼지기 전에는 노동자들과 만나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히치콕 사장의 철벽 같은 태도를 바꾸어 놓기 위해 마침내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을 택한 것이다.

지난 85년 3월에 유선 텔레비전 안테나 생산을 위해 설립된 피코 한국지사는 설립 뒤 5년 동안 법인이 세가 면제되고 87년 이전까지는 외국투자기업의 노동조합 설립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좋은 사업조건’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다. 그러다 법

인세 면세특례시한이 다가오고 88년 6월 노조가 결성되자 미국인 경영진은 지난해 2월28일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공장문을 닫고 본국으로 훌쩍 도망가고 말았다. 한달치 월급, 퇴직금, 하청업자에게 줄 돈, 그 밖의 여러가지 공과금을 모두 떼어먹고 남아 있는 자산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챙기라는 말을 남긴 채 떠나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공장건물에서부터 복사기까지 거의 모든 시설이 임대였던 데다 한국내에서 소비가 없는 원자재라 자산이란 것이 터무니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백여명의 노조원 중 90% 이상이 아줌마들이고, 그래서 ‘피코 아줌마’로 널리 알려진 이들 노조원들이 떼인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 내기 위한 싸움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인 사장이나 미국 대사관에 찾아가면 해결책이 있으리니 해서 대사관을 찾아가면 돌아오는 것은 어김없이 한국 경찰의 못매와 박해뿐이었다. 미국인 사장을 모인 주한 미상공회의소를 찾아가면 무슨 수가 있으리니 해서 찾아가 보았더니 거기에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백골단의 무자비한 발길질과 폭행뿐이었다.

3백여명의 노조원 중 90% 이상이 아줌마들이고, 그래서 ‘피코 아줌마’로 널리 알려진 이들 노조원들이 떼인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 내기 위한 싸움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인 사장이나 미국 대사관에 찾아가면 해결책이 있으리니 해서 대사관을 찾아가면 돌아오는 것은 어김없이 한국 경찰의 못매와 박해뿐이었다. 미국인 사장을 모인 주한 미상공회의소를 찾아가면 무슨 수가 있으리니 해서 찾아가 보았더니 거기에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백골단의 무자비한 발길질과 폭행뿐이었다.

유점순 노조위원장 등 3명의 노조원들은 미국으로 떠날 때 “한 달 정도면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히치콕이 ‘이토록 지독한 인물’인지를 몰랐으며, “두고 온 노조원들의 그 한 많은 설움과 눈물 때문에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는 떠날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석달 가까운 세월을 낯선 땅에서 외로운 시위를 계속해 오게 되었다.

석달의 기간은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 외로움 그리고 수많은 지원단체들과 동포들의 사랑과 위로가 섞인 세월이었다. 평일의 시위에는 유점순 노조위원장, 홍성에 사무장, 강영호 노조원 등 3명의 노조원들과 이들이 미국에 도착한 뒤 하루 24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최소라(미 연합감리교), 강미연(북미주 한국인권연합)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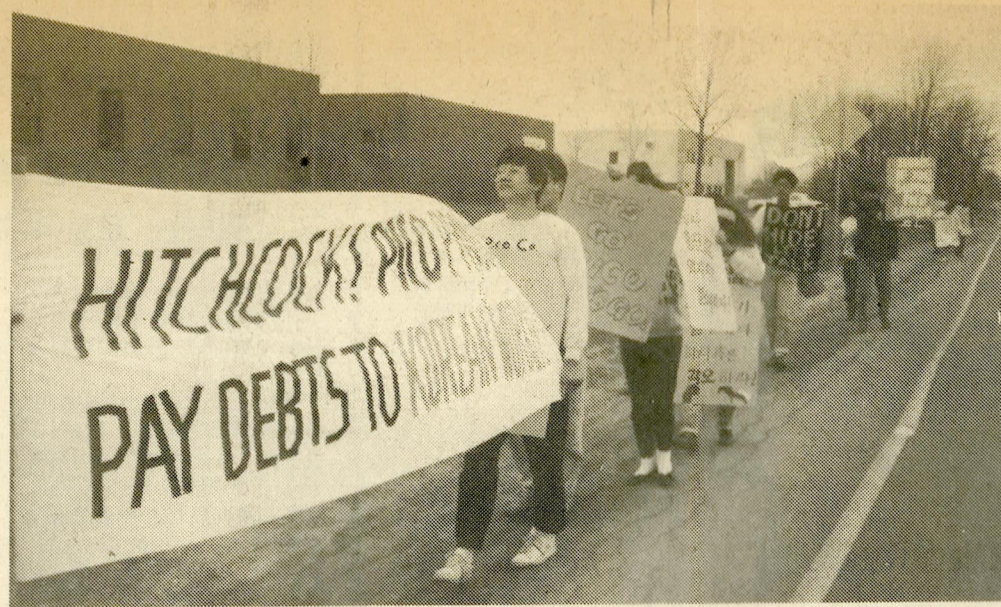
미국인 사장, 잔디에 살충제 뿌리며 시위 방해 노동·인권단체 후원 밀물 “끝까지 투쟁” 다짐

등 5명이 따가운 햇살 아래서, 때로는 세찬 바람에 피붓는 빗발을 맞으며 피켓을 들고 종일 지낸다. 그러나 시위가 평탄스럽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지난 6월12일에는 노래를 부르면서 구호를 외치다 소음죄 위반으로 경찰에 끌려가 1백20여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어느때는 히치콕이 직원을 시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잔디밭에 독한 살충제를 뿌리는

바람에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한 주말을 이용, ‘피코 노동자 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도시를 방문, 이곳 동포들에게 피코사태를 설명하고 지원을 호소해 왔다.

석달 동안 시위를 하면서 피코 사태가 널리 알려지게 되자 미노동총동맹 산업별조합회의(AFL-CIO), 무지개연합, 미 감리교 사회활동위 등 60여개 단체에서 이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히치콕에게 항의편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그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던 히치콕은 최근 미 감리교 사회활동위와 피코사태의 법적 처리를 떠맡은 미 헌법권리센터(CCR)에 대해 “반미 활동을 벌이는 범죄자들을 돕고 있다”면서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것

을 약속했다. 유점순 노조위원장은 “이제는 협상보다는 단식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점순 노조위원장은 “이제는 협상보다는 단식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코 노조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재미동포들이 “히치콕은 한국노동자에게 진 빚을 갚으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7월의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는 리버풀의 피코본사 앞 길가 조그만 땅뽕기에 앉아 이들은 오늘도 단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그날이 오면>을 부른다. 언젠가 이제 이들의 ‘아우’가 되어버린 강미연씨가 이 노래를 배워 서두른 우리말로 부르자 홍성에 사무장이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했다는 이야기를 강성효씨가 전해준다.

〈시러큐스=정연주 특파원〉

이미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정부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한국피코’ 등 노동자들의 ‘해외원정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말 외국인투자기업에 특별관리하는 한편 임금을 지불한 외국인업주에 대한 체제조치를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외국기업노동자분류대책’을 마련했으나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방적인 자본철회나 휴업조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외국기업 철폐로 인

“돈 보다는 자존심 되찾고 싶다”

유점순 노조위원장 원정투쟁 수기

90.7.11

엔진 소리가 요란스럽고 창밖으로는 솜사탕 같은 구름이 내다 보이는 기내에 앉아 있자니 내가 정말 뉴욕으로 가는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은 채 고국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뒤로 한 채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던 한국피코의 지난 1년2개월간의 싸움이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겨우내 지역 동지들 도움으로 다른 사업장의 김장을 해주는 대신 우거지와 김치를 얻어먹으며 쥐가 들끓는 시멘트 바닥에서 새 우잠을 자야 했던 피코 조합원들. 미국인 사장 히치콕이 우리에게 안겨준 정신적인 상처는 돈을 받는다 해도 치유될 수 없으리라.

게다가 한국경찰은 어땠는가? 임금과 퇴직금을 도둑맞은 피코 아줌마들은 보호받기는커녕 백골단의 사정없는 구둑발 세례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신세를 지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그뿐인가?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러 가는 곳마다 즉시 연행해 이구석 저구석에 마치 개, 돼지를 풀어 놓듯 팽개치거나 아니면 밤 늦은 시간에 선심이나 베풀 듯 놓아주기 일쑤였다.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하동지동 집으로 돌아오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장기투쟁계획을 세웠다. 뉴욕에 있는 동포들은 부족함이 없는 숙소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4월19일까지 전국적인 후원회가 결성되었다.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종 미국인 단체에 대한 홍보도 계속되었다. 4월20일 오전, 그간 준비한 보

서 눈물을 글썽이는 후원자들의 열의는 이 싸움이 결코 외롭거나 허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미국에 온 지 두달여 만인 6월14일, 우리의 후원 실무자들과 변호인들은 이들간의 토론 끝에 피코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다른 방법이

리버풀 피코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피코 노조원들과 재미 동포들. 핸드마이크를 쥐고 구호를 외치는 이가 유점순 노조위원장.



일해주고 매맞는 현실 자식에 물려줄 순 없어 시위하다 소음죄 벌금 물땀 약소국 비애 실감

면 라면과 찬밥으로 끼니를 때운 채 아무데나 쓰러져 자는 어린 아들의 모습이 내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히치콕의 위장철수 음모를 확인한 우리는 마침내 돈이 아니라 빼앗긴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미국으로 가자는 쪽으로 결의를 모았다. 비행기표 값을 모으기 위해 불펜 등을 판매하자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불펜을 사주었다. 전

사업종에 종사하는 어린 여성노동자들은 참쌀떡을 팔아 모은 50만원을 선포 내놓아 우리의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비자가 나오던 날 우리 모두는 막걸리와 김치에 취해 울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동지들은 형서로써 우리의 걸음을 지지해주었다. 자본의 횡포를 거부하면

다리와 복, 땀과리 등을 차에 싣고 시러큐스의 피코 본사로 출발했다. 오후 3시부터 돼지머리를 길들인 고사로 막을 올린 시위는 미국인 기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대로 어디를 가나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있었다. 시골 구석인 시러큐스에도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현재의 한국인 교수, 목사, 학생들의 도움으로 의식주 어느것 하나 불편함이 없었다. 동포들이 정성껏 마련해준 음식을 고마움에 겨워 눈물을 머금은 채 먹다 보면 고국에서 고생하고 있을 조합원들의 얼굴이 눈에 어른거렸다. 아무리 진수성찬일지라도 조합원들과 같이 부대끼며 고생했던 때가 더 즐거웠던 것 같다.

없었다 그들의 설명에 사무장과 나는 울 수밖에 없었다. 당장 쌀과 방세가 없어 고생하면서도 굶힘 없이 1년5개월 동안 벌여온 싸움이 법정 투쟁으로 귀결되다니 말이나 된단 말인가? 일본에 간 수미다와 스와니, TND는 적은 액수나마 타격을 보았는데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에서 임금을 착취하고 공과금과 세금도 포탈한 채 도망은 일개 자본가를 잡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 대표단은 7월5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국피코 아줌마들과 전국의 노동자들, 아니 전세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빼앗긴 민족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몸으로 우리의 걸음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다. 뼈빠지게 일하고 오히려 매나

저임 노려 들어왔다 도망치듯 발빠

늘어나는 외국기업 일방 철수...정부 대책 시급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하거나 철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70년대초부터 값싼 임금과 정부의 각종 특혜조치에 힘입어 국내에 진출, 그동안 투자액을 훨씬 넘는 이익을 남겨온 외국기업들이 지나 수

여개로 줄어들었다.

이같은 현상은 87년에 ‘외국인투자사업의 노조 및 노동쟁의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폐지돼 외국기업에서의 노동운동이 자유로워진 데다 지난 3년간의 비교적 높은 임금인상과 세금감면 혜택의 축소, 원화절상 등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매력이 크게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거나 하청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은행융자금까지 떼먹고 달아나기도 해 큰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휴업하거나 철수한 외국기업 32개 중 18개업체만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뿐이고 한국피코 등 나머지 14개 업체

끝내 미국 시리큐스 리버풀에 있는 피코 본사 앞 황량한 도로에서 지난 5일부터 단식이 시작됐다. 단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떼어먹고 도망친 미국인 사장과 담판을 하기 위해, 볼펜을 팔고 김장을 해준 돈을 팔듯이 모아 미국으로 건너와 거의 석달 동안 시위를 계속해 온 피코 노조위원장 유점순(36)씨 등 3명의 노조원들이다.

이들은 “지옥의 유흥불이 꺼지기 전에는 노동자들과 만나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히치콕 사장의 철벽 같은 태도를 바꾸어 놓기 위해 마침내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을 택한 것이다.

지난 85년 3월에 유선 텔레비전 안테나 생산을 위해 설립된 피코 한국지사는 설립 뒤 5년 동안 법인세가 면제되고 87년 이전까지는 외국투자기업의 노동조합 설립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좋은 사업조건’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법인세 면세특례시한이 다가오고 88년 6월 노조가 결

성되자 미국인 경영진은 지난해 2월28일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공장문을 닫고 본국으로 훌쩍 도망가고 말았다. 한달치 월급, 퇴직금, 하청업자에게 줄 돈, 그 밖의 여러가지 공과금을 모두 떼어먹고 남아 있는 자산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챙기라는 말을 남긴 채 떠나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공장건물에서부터 복사기까지 거의 모든 시설이 임대였던 데다 한국내에서 소비가 없는 원자재라 자산이란 것이 터무니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백여명의 노조원 중 90% 이상이 ‘아이준’아들인, 그래서 ‘피코 아들’로 널리 알려진 이들 노조원들이 떼인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 내기 위한 싸움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인 사장이나 미국 대사관에 찾아가면 해결책이 있으려니 해서 대사관을 찾아가면 돌아오는 것은 어김없이 한국 경찰의 못매와 박해뿐이었다. 미국인 사장들 모임인 주한 미상공회의소를 찾아가면 무슨 수가 있으려니 해서 찾아가 보았더니 거기에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백골단의 무자비한 발길질과 폭행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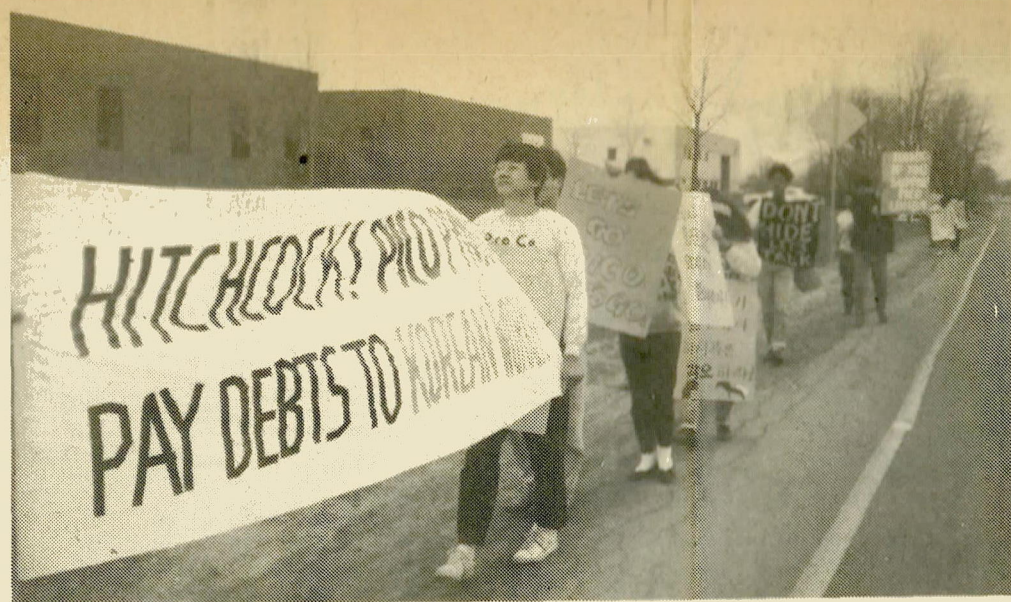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해 7월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소개로 재미변호사 임병국씨가 미국내 피코노조 변호사로 선임되어 히치콕 사장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알려오자 피코 노동자들은 “이제야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고 만세를 불렀다. 그러나 그 뒤 여섯달이 지났는데도 ‘협상’은 지부진이었다. 히치콕은 피코노조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한 데다, ‘임 변호사의 태도도 미적지근해서’ 노조원들은 마침내 직접 미국으로 원정가 담판을 짓기로 올 1월말 결정을 보았다.

유점순 노조위원장 등 3명의 노조원들은 미국으로 떠날 때 “한 달 정도면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히치콕이 ‘이토록 지독한 인물’인지를 몰랐으며, “두고 온 노조원들의 그 한 많은 설움과 눈물 때문에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는 떠날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석달 가까운 세월을 낯선 땅에서 외로운 시위를 계속해 오게 되었다.

석달의 기간은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 외로움 그리고 수많은 지원단체들과 동포들의 사랑과 위로가 섞인 세월이었다. 평일의 시위에는 유점순 노조위원장, 홍성에 사무장, 강영호 노조원 등 3명의 노조원들과 이들이 미국에 도착한 뒤 하루 24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최소라(미 연합칼리교), 강미원(북미주 한국인권연합)씨

미국인 사장, 잔디에 살충제 뿌리며 시위 방해 노동·인권단체 후원 밀물 “끝까지 투쟁” 다짐

등 5명이 따가운 햇살 아래서, 때로는 세찬 바람에 피붓을 맞으며 피켓을 들고 종일 지낸다. 그러나 시위가 평탄스럽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지난 6월12일에는 노래를 부르면서 구호를 외치다 소음죄 위반으로 경찰에 끌려가 1백20여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어느때는 히치콕이 직원을 시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잔디밭에 독한 살충제를 뿌리는



바람에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한 주말을 이용, ‘피코 노동자 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도시를 방문, 이곳 동포들에게 피코사태를 설명하고 지원을 호소해 왔다. 석달 동안 시위를 하면서 피코 사태가 널리 알려지게 되자 미노총동맹 산업별조합회의(AFL-CIO), 무지개연합, 미 갈리교 사회활동위 등 60여개 단체에서 이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히치콕에게 항의편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그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던 히치콕은 최근 미 갈리교 사회활동위와 피코사태의 법적 처리를 떠맡은 미 헌법센터(CCR)에 대해 “반미 활동을 벌이는 범죄자들을 돕고 있다”면서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

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7월의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는 리버풀의 피코본사 앞 길가 조그만 땅뽕기에 앉아 이들은 오늘도 단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그날이 오면>을 부른다. 언젠가 이제 이들의 ‘아우’가 되어버린 강미원씨가 이 노래를 배워 서투른 우리말로 부르자 홍성에 사무장이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했다는 이야기를 강성효씨가 전해준다.

〈시리큐스=정연주 특파원〉

저임 노려 들어왔다 도망치듯 발빠

늘어나는 외국기업 일방 철수...정부 대책 시급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하거나 철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70년대초부터 값싼 임금과 정부의 각종 특혜조치에 힘입어 국내에 진출, 그동안 투자액을 훨씬 넘는 이익을 남겨온 외자기업들이 지난 수년간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임금인상 등으로 한국내 경영실적이 부진, 수익률 등이 떨어지자 예고 없이 폐업 또는 철수해 노동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자본을 철수하거나 휴업을 한 외자기업은 32개사로 87년 22개 88년 20개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자기업이 밀집해 있는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경우에는 1백여개에 이르는 입주업체 수가 70

여개로 줄어들었다.

이같은 현상은 87년에 ‘외국인투자사업의 노조 및 노동쟁의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폐지돼 외자기업에서의 노동운동이 자유로워진 데다 지난 3년간의 비교적 높은 임금인상과 세금감면 혜택의 축소, 원화절상 등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매력이 크게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거나 하청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은행융자금까지 떼먹고 달아나기도 해 큰 불의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휴업하거나 철수한 외자기업 32개 중 18개업체만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뿐이고 한국피코 등 나머지 14개 업체

지난해 32개 회사중 18개만 적법절차 거쳐 철수 단순 노동쟁의 차원 아닌 나라간 문제로 다뤄야

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따른 보험 정보 등 서비스분야와 제조업 중의 고부가가치산업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저임금업종의 외국 자본 철수는 필연적인 추세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외자기업 철수의 문제점은 철수하는 것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철수업체 중 상당수는 적법한

는 폐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업주가 본국으로 달아나거나 노조 쪽과 청산협의절차를 밟지 않아 노조 대표들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해외본사로 찾아가는 ‘해외원정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외자기업의 부당철수와 노동자들의 반발은 그 성격상 단순한 노동쟁의의 차원을 넘어 국가간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업주가 본국으로 달아나면

이미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정부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한국피코’ 등 노동자들의 ‘해외원정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말 외국인투자기업들을 특별관리하는 한편 임금을 체불한 외국인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외자기업노사분규대책’을 마련했으나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방적인 자본철수나 휴업조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외자기업 철수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가 계속되자 한국노총·전노협·전국외국기업노조협의회 등 노동계에서

는 외자도입법을 개정해 △국내에서 부당폐업한 외국인의 재투자 금지 △외자기업이 폐업할 경우 사전에 노조 또는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 △외자기업은 노조 또는 종업원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상석 기자〉

엔진 소리가 요란스럽고 창밖으로는 솟아당 같은 구름이 내다 보이는 기내에 앉아 있자니 내가 정말 뉴욕으로 가는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은 채 고국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뒤로 한 채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던 한국피코의 지난 1년2개월간의 싸움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겨우내 지역 동지들 도움으로 다른 사업장의 김장을 해주는 대신 우거지와 김치를 얻어먹으며 쥐가 들끓는 시멘트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던 피코 조합원들. 미국인 사장 히치콕이 우리에게 안겨준 정신적인 상처는 돈을 받는다 해도 치유될 수 없으리라.

게다가 한국경찰은 어땠는가? 임금과 퇴직금을 도둑맞은 피코이중마들은 보호받기는커녕 백골단의 사정없는 구두발 세례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신세를 지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그뿐인가?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러 가는 곳마다 즉시 연행해 이구석 저구석에 마치 개, 돼지를 풀어 놓듯 팽개쳐거나 아니면 밤 늦은 시간에 선심이나 배풀 듯 놓아주기 일쑤였다. 과감치가 된 몸을 이끌고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오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장기투쟁계획을 세웠다. 뉴욕에 있는 동포들은 부족함이 없는 숙소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4월19일까지 전국적인 후원회가 결성되었다.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종 미국인 단체에 대한 홍보도 계속되었다.

4월20일 오전, 그간 준비한 보



리버풀 피코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피코 노조원들과 재미동포들. 핸드마이크를 쥐고 구호를 외치는 이가 유점순 노조위원장.

일해주고 매맞는 현실 자식에 물려줄 순 없어 시위하다 소음죄 벌금 물땀 약소국 비애 실감

면 라면과 찬밥으로 끼니를 때운 채 아무데나 쓰러져 자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내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히치콕의 위장철수 음모를 확인한 우리는 마침내 돈이 아니라 빼앗긴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미국으로 가자는 쪽으로 결의를 모았다. 비행기표 값을 모으기 위해 볼펜 등을 판매하자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볼펜을 사주었다. 전 작업종에 종사하는 어린 여성노동자들은 참쌀떡을 팔아 모은 50만원을 선뜻 내놓아 우리의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비자가 나오던 날 우리 모두는 막걸리와 김치에 취해 울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동지들은 형서로써 우리의 결의를 지지해주었다. 자본의 횡포를 거부하면서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는 그날까지 기필코 함께 가자 이 길을.

뉴욕에 도착한 다음날인 4월13일 히치콕 사장과 5시간 동안 마주앉았지만, 그는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대접을 해준 데 대한 고마움도 모른 채 도리어 “범죄자들과 얘기하기엔 시간이 아깝다”는 말만 남긴 채 유유히 사라져 버렸다. 남 연기 자욱한 작업장에서 코와 뺨에서 피가 나도록 부러먹은 뒤 하루아침에 공문 한 장 없이 도망은 사람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돈의 노예가 된 정신이상자라는 판단 밖에 서지 않았다.

마리와 북, 팽과리 등을 차에 싣고 시리큐스의 피코 본사로 출발했다. 오후 3시부터 돼지머리를 걸들인 고사로 막을 올린 시위는 미국인 기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대로 어디를 가나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있었다. 시골 구석인 시리큐스에도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현지의 한국인 교수, 목사, 학생들의 도움으로 의식주 어느것 하나 불편함이 없었다.

동포들이 정성껏 마련해준 음식을 고마움에 겨워 눈물을 머금은 채 먹다 보면 고국에서 고생하고 있을 조합원들의 얼굴이 눈에 어른거렸다. 아무리 진수성찬일지라도 조합원들과 같이 부대끼며 고생했던 때가 더 즐거웠던 것 같다.

교활한 히치콕은 피코 노동자들을 뺑뺑이라고 매도하는 유인물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각 신문사에 보내기에 바빴다. 또 징과 북을 친다는 이유로 소음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끌려가 벌금까지 물게 되자 새삼 약소국의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주말이면 뉴욕을 비롯, 전국에서 많이들 찾아와 함께 피깃시위에 참가하는 등 격려를 해주어 고맙기 그지없었다. 때로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도 시위를 계속하는 우리의 모습이 안쓰럽다며 따뜻한 커피와 우산을 가져와

서 눈물을 글썽이는 후원자들의 열의는 이 싸움이 결코 외롭거나 허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미국에 온 지 두달여 만인 6월14일, 우리의 후원 실무자들과 변호인들은 이틀간의 토론 끝에 피코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들의 설명에 사무장과 나는 울 수밖에 없었다. 당장 쌀과 방세가 없어 고생하면서도 굶힘 없이 1년5개월 동안 벌여온 싸움이 법정 투쟁으로 귀결되다니 말이나 된단 말인가? 일본에 간 수미다와 스와니, TND는 적은 액수나마 타격을 보았는데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에서 임금을 착취하고 공과금과 세금도 포탈한 채 도망은 일개 자본가를 감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 대표단은 7월5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국피코 아들·자들과 전국의 노동자들, 아니 전세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빼앗긴 민족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몸으로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다.

빠빠지게 일하고 오히려 매나 얻어맞는 현실을 후손들에게는 물려줄 수 없다.

물질양면으로 도와주시는 후원단체들과 학생, 동포, 각계각층의 양심 있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

고국을 떠나오던 날 “돈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오세요”라고 써주던 어린 아이들의 글귀가 떠오르며 가슴이 찡해온다.

한국피코 노동조합 위원장

유점순